

‘한글갈’의 훈민정음

강 신 함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한글갈’을 저술한 시기와 ‘한글갈’의 성격

1. 시기

세종 대왕은 세종 25년(1443년) 12월에 ‘훈민정음’(글자)을 창제하고, 이어서 집현전 학사들에게 이에 관한 해설책을 쓰도록 명하시었다. 집현전 학사들은 이 명을 받들어 3년 동안에 걸쳐서서 한문으로 된 해설책을 지었다. 이 책은 세종 28년(1446년) 9월 상순에 편찬이 완료되었는데, 책 이름은 새 글자의 이름과 똑 같은 ‘훈민정음’이었다.

이 책에서는 ‘훈민정음’(다음부터 글자를 가리킬 때에는 ‘한글’이라고 함)의 음가(音價), 제자 원리(制字原理), 운용법(運用法), 실지로 기록한 예(用字例) 등을 자세히 다루고 있어서, 이 책을 잘 읽어 보면, 새로 만든 한글과 15세기 중세 국어의 음운 체계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조선조 500년 동안, 우리말과 우리 글자를 연구한 학자들 가운데 이 책을 참고로 한 듯이 말한 사람은 거의 없고, 이 책에 대하여 언급한 문헌은 숙종 때의 최석정(崔錫鼎, 1646~1715)이 지은 ‘경세정운(經世正韻)’과 숙종 때 간행된 ‘신간배자예부운략(新刊排字禮部韻略)’ 정도였다.

그래서 19세기 후반의 개화기 때, 우리말과 우리 글에 대한 우리 민족의 관심이 높아져서 국어와 국문을 애용(愛用)하지는 운동이 크게 벌어지고, 국어와 국문 연구열이

불같이 일어났을 때, 우리 나라 학자들은 ‘훈민정음’을 참고로 할 수 없는 것을 가장 안타까운 일로 여겼었다.

2. ‘한글갈’의 성격

그러다가 1940년에 경상북도 안동군의 어떤 오래된 집에서 온 국민이 찾고 있던 ‘훈민정음’이 발견되었다. 이 책은 나중에 안동군(安東郡) 와룡면(臥龍面) 주하동(周下洞, 周村) 이한걸(李漢杰) 집안에 대대로 전해 내려온 보물이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1910년대부터 우리말과 한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온갖 정열을 기울여서 연구에 몰두해 온 외솔 최현배(다음부터 ‘외솔’이라 일컬음)로서는 여간 기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 기쁨을 외솔은 ‘한글갈’(1940년에 짓고, 1942년에 펴냄, 710페이지, 정음사)의 머리말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 책은 ‘訓民正音’에 관한 일체(一切)의 역사적 문제와 한글에 관한 일체의 이론적 문제를 크고 작고 망라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논구하여, 그 숨은 것을 들어내며, 그 어두운 것을 밝히며, 그 어지러운 것을 간추리어, 써 정연한 체계의 한글갈(正音學)을 세워, 우로는 신 경준(申景濬), 유희(柳僖)의 유업(遺業)을 잇고, 아래론 주 시경(周時經) 스승의 가르침의 유지(遺志)를 이루고자 하였다.

이리하여 ‘한글갈’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은 취지에 맞도록 저술되어 ‘훈민정음에 관한 일체의 역사적 문제’, 즉 국어학사적인 내용과 ‘한글에 관한 일체의 이론적 문제’, 곧 문자론과 음운론 그리고 국어사적인 내용이 다 포함되었다. 목차만 보더라도

첫째 매 역사편

첫째 가름 훈민정음의 창제

둘째 가름 한글 쓰기의 번짐(한글 사용의 발전)=한글 발전사

셋째 가름 한글 갈기의 피어남(정음 연구의 발달)=정음 연구사

둘째 매 이론편

첫째 가름 훈민정음의 통해(通解)

둘째 가름 없어진 글자의 상고

셋째 가름 갈바쓰기의 세움(並書論)

넷째 가름 한글의 기원(밑뿌리)
다섯째 가름 한글의 세계 문자상의 지위
여섯째 가름 견주는 한글갈(比較正音學)

과 같이 크게 '역사편'과 '이론편'으로 나뉘어져 있고, 국어학사와 국어사, 문자론과 음운론 분야에 걸쳐 있다.

II. 역사편의 내용

1. 국어학사적인 내용

우리 나라 국어학계에서는 국어학사의 개념에 관해서 몇 가지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 첫째는 국어학을 순전히 국어에 대하여 연구한 학술사로 기술하여야 한다는 견해다. 두 번째는 '한글갈'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훈민정음에 관한 일체의 역사적 문제와 한글에 관한 일체의 이론적 문제를 크고 작고 망라하여' 기술한다는 견해다. 그리하여 '한글갈'의 첫째 매 역사편에서는 우선 '훈민정음에 관한 일체의 역사적 문제'를 총망라하여 기술하고 있다.

첫째 가름 '훈민정음의 창제'에서는 '훈민정음' 원문(훈민정음 해례본)과 '훈민정음 언해본'(한문으로 된 훈민정음 해례본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의편〈例義篇〉만을 번역하여 수록한 책)을 그대로 전부 옮겨 실고, '훈민정음 원본의 상고'라 하여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하여 서지적으로 고찰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한글갈'을 저술할 때까지 알려진 해례본과 여러 언해본에 대하여 언급하고, 한문으로 쓰여진 '훈민정음'이 원본임에 틀림없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훈민정음 창제의 경과를 고찰하였다. 훈민정음 창제의 동기와 이유에 대하여 먼저 언급하여, '훈민정음 해례본'에 실려 있는 세종의 서문을 인용하고, 세종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한 동기와 이유는 바로 이 서문에 나타나 있다고 하였다.

- ① 우리 나라에는 독특한 우리말이 있으니 이 말을 적어 내기에 알맞은 글자가 있어야 한다.
- ② 남의 글자인 한문은 우리말과 서로 통하지 않는 어려운 글이다.
- ③ 글자를 깨치지 못하는 일반 서민에게 글자를 만들어 주어서 그 뜻을 마음대로 펴게 하였다.

- ④ 이 새 글자는 상하,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쉽게 익혀서 민중 문화의 보급과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한글은 세종 25년 12월에 창제되어 세종 28년 9월에 반포되었다고 하고,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조선어학회에서 10월 9일(훈민정음 해례본의 서문에서 정인지가 9월 상한이라고 한 것을 양력으로 환산한 것)을 ‘한글날’로 정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이 훈민정음 창제의 경과에 대하여 언급하고, 덧붙여서 세종 26년 2월 20일에 올린 최만리(崔萬理) 등의 한글 창제 반대 상소문도 전부 번역하여 실었다.

이어서 ‘조선글의 이름의 변천’이라 하여, 한글이 창제된 이후 한글을 ‘훈민정음·정음·언문(諺文)·언서(諺書)·언자(諺字)·반절(反切)·한글’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러 왔음을 지적하였다.

2. 한글 문헌 고찰

둘째 가름 ‘한글 쓰기의 번짐(한글 사용의 발전)=한글 발전사’ 부분은 ‘한글갈’의 특징의 한 면을 보여 주는 내용이다.

‘한글갈’의 72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256페이지라는 많은 분량에 걸쳐서, 한글이 창제된 이후 20세기 초기에 이르는 동안, 한글이 보급된 경위와 한글로 쓰여진 모든 서적에 관하여 서지적으로 고찰하였다. 한글로 쓰여진 글 가운데, 소설류 등 국문학 작품에 관한 서적에 대해서는 전부 기술하지 않고 일부만 고찰하였으나 한문이나 외국어를 번역한 서적, 즉 언해(諺解)류에 속하는 서적 가운데 당시까지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자세히 기술하였다.

이러한 서지적인 기술은 국어학사적인 고찰이라기보다 국어사 및 국어학사 자료에 대한 해설이었다.

만일에 국어사와 국어학사 연구를 위한 기본 자료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국어사나 국어학사를 기술한다면 이것은 사상누각(砂上樓閣)을 쌓는 일과 마찬가지로 일이다. 그런데 ‘한글갈’에서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비롯하여 한글 관계 모든 문헌에 대하여 서지적인 면에서 자세히 고찰하고 각 자료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였다. 이와 아울러 각 자료의 한 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게재하였으므로 ‘한글갈’의 독자가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국어사 및 국어학사를 연구할 때에 좋은 길잡이가 되고 있다.

다시 둘째 가름 ‘한글 쓰기의 번짐 = 한글 발전사’의 내용을 보면, 첫째 조각 ‘한글의 독립적 쓰기(獨立的 使用) = 정음류(正音類)’에서는 한문 책이나 외국 문헌을 한글로

번역한 자료가 아니라, 한글만 가지고 저술된 자료를 먼저 고찰한 부분이다. 이들 자료는 순 한글만으로 저술된 것과 한글과 한자를 섞어서 쓴 글로 저술된 것이 있는데, 여기에 속하는 자료는 조선 시대의 문학 작품과 19세기 후반의 개화기(開化期)의 저술(西遊見聞 등), 그리고 신문 잡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어서 이층째 목 '한글의 융성기(隆盛期)' 항목에서는 1930년대의 조선어학회의 업적까지도 기술하고 있다.

둘째 조각 '한문의 역해(譯解, 諺解) = 역문류(譯文類)' 부문에서는 언해와 관련이 있는 토(吐)·구결(口訣)·석의(釋義)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한 다음, 한문으로 쓰여진 유교 및 불교 관계 서적들 가운데 한글로 번역된 자료에 대하여 시대별로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상당한 힘을 기울였다.

셋째 조각 '한자의 역해 = 역자류(譯字類)' 항목에서는 언해한 운서(韻書), 언해한 옥편(玉篇), 언해한 유별자서(類別字書)라 하여 우리 나라와 중국의 운서, 옥편, 자서를 열거하였는데 엄격히 말하면, 이들은 언해한 자료들이 아니라 중국 운서에 수록된 한자들의 음을 한글로 주음(注音)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편찬된 운서와 옥편은 우리 나라에서 통용되어 온 한자들을 그 음(漢字音)을 기준으로 하여 중국 운서(또는 옥편)와 같은 형식으로 엮은 것들이다. 또, 셋째 조각 '한자의 역해'의 넷째 목에서 '이두(吏讀), 이문(吏文)에 관한 한글'을 다루었는데 이들 자료도 한자의 역해(譯解)가 아니라 한자의 음과 뜻(訓, 釋)을 이용하여 우리말을 기록한 자료들이다.

넷째 조각 '다른 말의 역해 = 譯解類' 항목에서는, 먼저 일본어·중국어·만주어·몽고어 항에서 이들 언어를 위한 학습서, 대역(對譯) 사전을 소개하고, 범어(梵語)에 관한 한글에서는 범어로 쓰여진 불경들의 문장에 한글로 음을 단 자료들을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여섯째 목 '서양말에 관한 한글'에서는 19세기 이후 서양의 여러 나라들과의 교섭이 시작되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던 서양의 여러 언어와의 대역 사전, 한글로 번역된 성서를 비롯한 그리스도교 관계 여러 서적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셋째 가름은 '한글 갈기의 피어남(正音研究의 發達) = 정음 연구사'이다. 이 항목 앞까지의 기술이, 국어사 및 국어학사 연구에 필요한 문헌 자료들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라면 여기의 셋째 가름이 국어학사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첫째 조각에서는 '훈민정음해례'를 정인지(鄭麟趾) 무리의 한글 학설로 보고 제자해(制字解)의 내용을 순서에 따라서 요약한 것을 번역해서 소개하였다.

계속해서 초성해(初聲解)·중성해(中聲解)·종성해(終聲解)·합자해(合字解)·용자례(用字例)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요약한 것을 번역하여 소개하고, 해례의 내용 가운데 주목할 만한 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① 한글의 기원이 상형(象形)에 있고
 - ② 중성도 합용할 수 있으며
 - ③ 여덟 중성만으로 통용이 가능하고
 - ④ ㅅ과 ㅈ 중성은 우리말에만 쓰인다.
 - ⑤ ㅈ은 ㅇ과 통용될 수 있고,
 - ⑥ 반설경음(半舌輕音)도 가능하며,
 - ⑦ ㅊ, ㅌ 음도 쓸 수 있다.
-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였다.

- ① 驚의 음은 ‘별’이어야 한다고 한 점
- ② 인해본들에서는 8중성만 쓰지 않았다.
- ③ 정인지의 서문에는 ‘象形而字做古篆’이라고 했는데 제자해에서는 ‘象形’이라고만 한 점
- ④ 초성자를 발음 기관의 상형으로 풀이함과 같이, 중성자도 발음 기관 상형 내지 발음 작용 상형으로 풀이할 수 없을까? 이러한 생각은 이 책의 뒷부분에서 다시 한 번 되풀이하여 강조하고 있다.

위의 의문점 가운데, 제3항은 한글 창제의 제자원리가 ‘상형에 있다’고 제자해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으므로, ‘字做古篆’은 제자 원리가 아니며 서로 결부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

제4항의 의문도 제자해에서 중성자의 상형 대상이 ‘·象乎天’, ‘— 象乎地’, ‘| 象乎人’이라고 하여 · — | 세 기본 모음 글자는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둘째 조각 ‘훈몽자회 범례에 나타난 최세진의 학설’에서는, 범례에 실려 있는 ‘諺文字母 俗所謂 反切 二十七字’가 이론적인 설명은 부족하다고 하고서도 ‘그 실제적 방면에 있어서 중대한 획시기적(劃時期的) 전환을 지은 것’이라고 하여 범례의 일부 내용을 옮겨 적고 상세히 고찰하였다.

즉, 훈몽자회 범례가 ‘한글의 역사상 가진 의의’라 하여 몇 가지를 지적하였다.

- ① 한글 자모의 배열 순서가 훈민정음과 많이 달라져서 오늘날 통용되고 있는 것과 가깝게 되었다.
- ② ㅈ자가 없어져서 한글이 27자가 되었다.

- ③ 초성자와 중성자를 합용하여 글자를 만든 한글 배열표(반절)가 쓰이기 시작했다.
- ④ 팔중성법(八終聲法)과 ㅈ자의 생략(소실)은 훈몽자회 이전부터 통용되고 있었던 사실을 최세진이 기록한 것이다.
- ⑤ 낱낱의 한글 글자의 이름을 지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외솔의 착각으로서 최세진은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통용되고 있는 것을 기록했을 뿐이다.

셋째 조각 ‘훈음종편(訓音宗編)에 나타난 이사질(李思質)의 한글 학설’에서 외솔은 “이사질이 어떠한 사람임을 알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이사질은 숙종 31년부터 영조 52년(1705~1776)까지 생존한 학자다. 그의 문집인 ‘흙재고(翁齋稿)’는 ‘한산세고(韓山世稿)’ 권 8부터 권 18까지에 수록되어 있고, ‘훈음종편’은 한산세고 권 18의 권두에 수록되어 있으며, 그 분량도 29장에 달하는 많은 양이다. 외솔은 ‘훈음종편’의 내용에 관하여 한글의 자형(字形)이 천원지방(天圓地方)을 상형하여 창제되었다고 설명한 학설 등 세 가지를 소개하였다.

넷째 조각 ‘정음통석(正音通釋)의 범례에 나타난 박성원(朴性源)의 한글 학설’에서는 ‘화동정음통석운고(華東正音通釋韻考)’의 범례 내용을 소개하였다. 내용의 성질이 어떠한지 이사질의 ‘훈음종편’이 29장에 달하는 많은 양에 걸쳐서 어떤 학설을 주장한 것인데 비하여, 정음통석의 범례는 어떤 학설을 주장한 것이 아니다. 단지 모자 대신에 ◇자를 쓰자, 수는 수우의 간음(間音), 보는 부우의 간음, 우는 이우의 중음(重音), 한는 하오의 중음 등과 같이 몇 가지 설명을 기록했을 뿐이다. 외솔은 이러한 내용을 여섯 항으로 나누어서 설명했다.

다섯째 조각 ‘훈민정음도해(訓民正音圖解)에 나타난 신경준(申景濬)의 한글 학설’에서는 신경준을 ‘한글갈(정음학)의 중흥자(中興者)다’라 하고, ‘운해(韻解)’의 중심 부분을 이루는 ‘훈민정음도해’ 부분을 초성해·중성해·종성해로 나누어서 상세히 고찰하였다. 그러나 이 ‘운해’는 신경준이 생각하고 있던 한자음(사성통해음)을 정확하게 기록해 보겠다는 목표 아래 저술했던 것으로서 그의 저술인 ‘운해훈민정음’에서는 첫머리예다가 ‘경세성음수도’를 실고, 다음의 ‘훈민정음도해’부분에서 한글에 관하여 이론을 전개한 다음, 끝부분에서 한자음을 표시하는 도표를 보인 것이었다.

여섯째 조각 ‘삼운성휘(三韻聲彙)의 범례에 나타난 홍계희(洪啓禧)의 한글 학설’에서는 범례에 실려 있는 ‘언자초중종성지도(諺字初中終聲之圖)’를 옮겨 실고, 한글 자모 수가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등 14초성과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등 11중성으로 줄었음을 지적하였다.

일곱째 조각 ‘경세정운도설서(經世正韻圖說序)에 나타난 홍양호(洪良浩)의 한글 학설’에서는 ‘경세정운’(崔錫鼎 저, 숙종4, 1678) 서문의 부록으로 되어 있는 ‘훈민정음 초성 상형도(訓民正音初聲象形圖)’에서 ‘ㄱ 君初聲 牙音 象牙形, ㄴ 那初聲 舌音 象舌形’ 등과 같이 사실과 어긋나게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였다.

여덟째 조각 ‘자모변(字母辨)에 나타난 황윤석(黃胤錫)의 한글 학설’에서는 황윤석의 업적으로 ‘화음방음자의해(華音方音字義解)’·‘운학본원(韻學本源)’·‘자모변(字母辨)’의 세 가지가 있음을 말하고, 주로 한글의 자모수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한 ‘자모변’의 내용을 인용하고 비판하였다.

아홉째 조각 ‘주영편(晝永編)에 나타난 정동유(鄭東愈)의 한글 학설’에서는 정동유가 ‘주영편’ 하권의 첫머리부터 제12장까지에 걸쳐서 한글의 우수성, 사성통고에 두 종류가 있었다고 한 점 등 9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한글에 대하여 논한 바를 소개하였다.

열째 조각 ‘언문지(諺文志)에 나타난 유희(柳僖)의 한글 학설’에서는 “훈민정음이 반포된 뒤에 그 요묘한 진리의 발에 채굴의 팽이를 가장 먼저 내린 이는 정음이 생겨난 지 3백여년 영조 때의 신경준임은 앞에 이미 말한 바이어니와, 신공(申公)의 훈민정음 도해가 생겨난 지 74년만에 새로운 팽이로 진리의 광을 캐어 정연한 체계를 이룬 것은 용인(龍仁) 출생 유희(1773-1837)의 언문지이다.”라고 하고 이어서 “훈민정음의 진리가 차차 천명되어 온 역사에 있어 이 두 책은 정히 불멸의 쌍벽이라 할 만하다.”라고 평하였다.

그리고 나서 ‘언문지’의 내용을 초성례·중성례·중성례·전자례의 순으로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면서 찬동할 수 없는 이론에 관해서는 비판도 하였으며, 끝에 가서 ‘언문지’의 학설 가운데 특기할 만한 점을 들었다.

- ① 된소리의 적기에 있어서 병서론(並書論)을 주장한 것
- ② ㅇ과 ㅁ의 다름을 밝힌 것
- ③ ㅎ받침의 가능성을 말한 것
- ④ 『·』의 소리값이 『ㅏ ㅑ』의 사잇소리임을 밝힌 것
- ⑤ 한글의 기원을 몽고 문자에 둔 것
- ⑥ 소리글인 한글이 뜻글인 한자보다 나은 점을 밝힌 것

열한째 조각 ‘유희 이후 주시경(周時經)에 이르는 동안의 한글갈의 대강(大綱)’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학자들의 학설을 소개하고 비판하였다.

- ① 석범(石帆)의 언음첩고(諺音捷考)
- ② 이규경(李圭景)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 ③ 정윤용(鄭允容)의 자류주석(字類註釋)
- ④ 강위(姜瑋)의 동문자모분해(東文字母分解)
- ⑤ 이봉운(李鳳雲)의 국문정리
- ⑥ 지식영(池錫永)의 신정국문(新訂國文)
- ⑦ 국문연구소(國文研究所) 위원들의 한글 학설
- ⑧ 어윤적(魚允迪)의 조선문자모강화(朝鮮文字母講話)
- ⑨ 유길준(兪吉濬), 최광옥(崔光玉)의 한글 학설

열두째 조각 '주시경의 한글 학설'에서는 먼저 "유희의 뒤의 한글은 겨우 명맥(命脈)이나 이을 따름이러니, 한헌생 주시경이 나서 비로소 조선의 말과 글의 연구가 면목을 일신하여 크게 나아가고 높이 이루어, 한글 갈기의 피어남의 역사상의 최고봉을 지었다."라고 하여 주시경의 학문적 위치를 정의하였다.

그런 다음에 주시경의 국문연구소 위원으로서의 보고서와 그의 저서 '국어 문전 음학(國語文典音學, 1908)', '국어 문법(國語文法, 1910)', '말의 소리(1914)'를 중심으로 그의 학설을 소개하였다.

열셋째 조각 '주시경 이후의 한글갈의 대강'에서는 김두봉(金斗奉), 권덕규(權惠奎), 신명균(申明均), 장지영(張志暎), 김윤경(金允經), 이윤재(李允宰), 이극로(李克魯), 이희승(李熙昇), 방중현(方鍾鉉), 이승녕(李崇寧), 이탁(李鐸), 김석곤(金碩坤), 홍기문(洪起文), 박승빈(朴勝彬) 등 20세기에 한글에 관하여 관심을 가졌던 학자들의 저서 및 논문을 중심으로 하여 간략히 소개하고 비판하였으며, 끝으로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의 한글 연구'라 하여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 '조선어 표준말' 사정, '한글 가로 글씨(橫書字體)의 연구', '한글의 비교문자학적 연구 - 외래어음 표기법, 국어음 표기법, 조선어음 로마자 표기법, 조선말 소리와 은누리 소리표(萬國音聲記號)와의 대조안' 등 업적을 소개하였다.

Ⅲ. 이론편의 내용

1. 한글에 대한 고찰

둘째 매 이론편은 세종이 새로 창제한 한글에 대하여 여러 면으로 고찰한 부분이다.

첫째 가름 ‘훈민정음의 통해’라 하여 첫째 조각 ‘훈민정음’ 본문의 해설에서는 한문으로 된 ‘훈민정음’의 본문(예의편, 例義篇)과 이를 한글로 번역한 글을 대조하여 볼 수 있도록 먼저 실고, 15세기 중세 국어로 기록된 번역문을 어학적으로 주석하였다. 50년 전에 쓰여진 주석이기는 하나, 그 뒤의 연구 성과로 비추어 보아도 별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상세하고도 수준이 높게 기술한 주석이었다.

둘째 조각 ‘한글 제작의 기교’에서는 당소리(初聲)와 홀소리(中聲)로 나누어서 한글의 제작 원리(制字原理)를 다시 한 번 설명하였다.

셋째 조각 ‘훈민정음에서의 맞춤법’에서는 15세기 중세 국어의 표기법 원칙이 ‘소리 대로 적기’에 있음을 밝히고 둘째 목 ‘사잇소리의 적는 법’에서는 “사잇소리의 소리로서의 일함(作用)은 그 이웃말의 끝의 소리가 그 아랫말의 첫소리에 소리 바꾸는 열(變音의 影響)의 미침을 막기 위하여, 그 옷말의 끝소리의 남은 김(勢)을 딱 막아 끊음에 있다.”고 정의를 내리고, 매우 긴 분량에 걸쳐서 초기의 한글 문헌에서의 표기 예를 중심으로 하여 여러 갈래로 분석하여서 보이었다.

2. 소실자(消失字)에 대한 고찰

둘째 가름 ‘없어진 글자의 상고’에서는 먼저 첫째 조각 ‘한글의 지수 및 차례의 변천’에서 한글이 창제된 이후 변화한 글자수와 차례를 역사적으로 여러 문헌을 기초로 하여 설명하였다.

둘째 조각 ‘·자의 소리값 상고’부터 한글이 창제된 이후 소실(消失)된 ‘·, △, ○, ㅁ, 가벼운 입술소리(輕唇音)’의 음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자의 소리값 상고’에서는 ‘·자에 관한 고금(古今) 학자들의 학설’이라고 하여 (一) ‘훈민정음’ 제작해의 설명(한글갈에서는 정인지 무리의 설이라고 표현)부터 소개하였다. 여기에서 외술은 인용을 잘못된 듯 ‘一舌小縮’을 ‘一舌縮’으로 보고 ‘·舌縮’과 같다고 하여 제작해의 중성자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는 ㅅ, ㅌ에 가까우며 또 ㅍ에 가깝다. 그리하여 또 ㅌ, ㅍ에 가깝다. 한 말로 줄이면, ·는 ㅌ, ㅍ, ㅅ, ㅌ, ㅍ에 두루 가까운 소리이라고 하겠다.”

‘(二) 신숙주의 다름(取扱)’에서는 신숙주가 ‘사성통고(四聲通攷)’ 범례(1455년 경)에서 ‘爲卜之字 則讀如卜・之間, 卜則卜・之間’ 등이라고 한 것을, “·가 모든 홀 소리에 두루 가까운 불분명한 중성적인 복판 홀소리(中間母音)임을 추찰(推察)”케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았다.

‘(三) 신경준의 설’에서는 “우리가 신여암(申旅庵)의 역학적 성리학적 음운 해석은 그대로 믿지는 아니하지만, 그의 논술의 요지는 현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여 ‘운해훈민정음’에서 ‘·呼時 舌微動唇微啓’ 등과 같이 설명한 것을 근거로 하여 신공(申公)의 견해를 “·는 최초로 발생한 홀소리이고, 홀홀소리이며, 그 턱모의 크기가 卜 — 와 卜 ㅍ와의 사이에 있고, 소리남이 똑똑하지 못하다.”라고 하였다.

‘(四) 유희의 설’에서는 ‘언문지(諺文志)’에서 “東俗不明於·, 其聲本在卜 — 之間”이라고 한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하였다.

‘(五) 주시경의 설’에서는 그 지음 ‘조선어 문전 음학(朝鮮語文典音學)’과 ‘조선어 문법’에서 ‘·는 卜 — 의 거둑소리’라고 주장한 것을 소개하면서 동의할 수 없음을 밝혔다. 이어서 다음과 같이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길게 또는 짧게 소개하고 비판하였다.

- | | |
|------------|-----------------------|
| 이능화(李能和) | ·는 卜 ㄱ — ㄷ 의 간음 |
| 소창진평(小倉進平) | ·의 원음(原音)은 卜 와 ㄱ의 중간음 |
| 이극로(李克魯) | ·의 소리값은 [ɔ] |
| 김석곤(金碩坤) | ·의 소리값은 [ə] |
| 이승녕(李崇寧) | ·음은 卜 ㄱ의 간음 |

둘째 목 ‘· 소리의 변천과 혼용’부더는 셋째 목 ‘맺음 = ·의 소리값’을 증명하는 자료로 하여 역대 여러 문헌에서 ·자가 어떻게 쓰이었는데, 그 변화 과정을 참으로 많은 양에 걸쳐서 예를 들어 보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서 셋째 목에서는 “·는 복판 홀 소리인 卜 — 의 사잇소리 [ə]이며, 똑똑하지 않은 중성적 홀소리이다.”라고 결론지었다.

넷째 목 ‘· 소리의 없어진 시기’에서는 “말소리에서의 ·가 선조로부터 그 소리값 자체가 없어지기 비롯하여 영정(英正)시대에 전연(全然)히 그 소리값을 잃어버렸다.”고 하였다.

셋째 조각에서 “△는 ㅅ의 흐린 소리니 ㅈ와 같은 소리다.” 하고 단정을 내리고서 간단히 증명을 피하였고, 넷째 조각에서 “ㅇ를 목청떠는소리(聲帶振動音)로 볼 수도 있으나 ‘소리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였다.

다섯째 조각 ‘ㄷ자의 소리값 상고’에서는 ‘ㄷ는 목청터짐소리(聲帶破裂音)’라 하고 길게 논증하였으며, 여섯째 조각 ‘가벼운 입술소리(輕唇音)의 상고’에서는 특별히 음가를 밝히지는 아니 하였다.

셋째 가름 ‘갈바쓰기의 세움(並書論)’은 상당히 많은 정력을 기울이어 기술한 부분으로서, 분량도 598페이지부터 683페이지에 이르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된소리는 예사소리를 되게 내는 소리’라고 규정하고, 이를 표기하는 데는 각자병서(各自並書)이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ㄱ, ㄷ, ㅂ, ㅅ, ㅈ의 각자병서는 물론 ㄴ, ㄹ, ㅁ, ㅇ의 각자병서까지 된소리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둘째 조각 ‘고전의 해석’에서는 합용병서(合用並書)로 쓰인 된비읍, 된시옷, 된비읍시옷 등에 관하여 여러 문헌에서 그 표기예를 찾고, 합용병서로 쓰인 비읍과 시옷, 비읍시옷이 각각 제 소리값으로 발음되던 것을 적은 예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동국정운식한자음에서 전탁음을 표기한 각자병서도 된소리로 보았다.

넷째 가름 ‘한글의 기원(밑뿌리)’에서는 여러 학자들이 주장한 기원설을 소개하고 하나하나 비판한 다음, ‘발음 기관 상형 기원설’을 주장하였다. ‘훈민정음 해례본’ 제자해(制字解)에서, ‘正音二十八字, 各象其形而制之’라고 하였으므로, 한글이 어떠한 모습(其形)을 상형하여 만들어진 것은 분명하다. 다만 상형한 대상인 ‘기형(其形)’이 초성의 기본 글자는 발음 기관 내지 조음 상태(調音狀態)이었고, 중성의 기본 글자는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이었다. 그러나 외술은 ‘훈민정음 해례본’ 제자해에 나와 있는 이러한 설명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신경준의 상형설을 따라서 중성 글자까지도 발음 기관의 발음 작용을 상형하여 만들었다고 하였다. 한 예만 들어 보겠다.

“一은 소리낼 적에 혀가 평평하고 입을 좌우로 켜기는 맛이 있으므로, 가로 획으로 그 꼴을 삼았다.”

“ㅣ는 소리낼 적에 혀가 우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맛이 있으므로 세로 획으로 그 꼴을 삼았다.”

이러한 설명이 사실과 맞다고 할 수는 없다.

다섯째 가름 ‘한글의 세계 문자상의 지위’에서는 결승(結繩) 문자에서 단음 문자로 발달한 일반적인 문자 발달 과정을 설명하고 “낱소리 글자(單音文字)에 속하는 한글은 가장 높은 발달 계단에 속한 가장 좋은 글자”라고 하였다.

여섯째 가름 ‘견주는 한글갈(比較正音學)’은 주로 ‘한글을 온누리 소리표(萬國音聲記號)로 옮겨 적기’, ‘온누리 소리표를 한글로 옮겨 적기’를 중심으로 하여 여러 학자들의 시안(試案)을 소개한 것이다.

IV. 맺는 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글갈'은 크게 두 가지 성격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로 세종 대왕이 창제한 한글에 관하여, 그 창제의 동기와 경위, 한글의 기원, 한글 창제의 제자 원리, 한글의 보급, 한글로 쓰여진 모든 서적에 대한 소개, 한글이 창제된 이후 소실된 글자에 대한 고찰, 한글 표기법의 변천과 개선안 등을 제시하여, 국어사 연구에 관련된 고찰을 많이 하였다.

둘째로 '한글갈'에서는 세종 대왕이 창제한 한글에 대하여 집현전 학사들이 한문으로 해설을 한 한문책 '훈민정음'을 비롯하여, 조선 시대부터 1930년에 이르는 사이에 우리나라 학자들이 한글 또는 우리말에 대하여 연구하거나 언급한 자료들을 가지고 일종의 연구사를 기술하였다.

이와 같이 '한글갈'은 훈민정음을 중심으로 하여 국어사 및 국어학사적인 연구 결과를 서술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어사와 국어학사 연구를 수행할 때 반드시 보아야 될 자료들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준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은 '한글갈'이 저술된 시대적인 배경이다. 이 글의 첫머리에서 '한글갈'이 쓰여졌던 시기에 대하여 이미 언급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순전히 학문적인 배경에 관해서만 언급한 것이었다.

'한글갈'이 저술되던 1940년경의 우리나라 형편은 참으로 암울한 시기였다. 1910년의 국치(國恥) 이래, 일본어라는 공용어(公用語) 아래에서 한국어는 하나의 방언(方言) 같은 형편에 놓여 있었다. 각급 학교에서는 명목상으로 한국어(조선어) 교육이 실시되어 왔는데, 그나마도 1938년부터는 이 교육이 폐지되고, 각급 학교에서의 한국어 사용이 철저히 금지되는 동시에, 한국어에 의한 교육도 배제되던 시기였다.

'한글갈'은 바로 이렇게 우리말과 우리 글이 가장 탄압을 받던 암담한 시기에 저술된 큰 업적이었다. 외솔은 앞날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던 시기에도, 우리말과 우리 글에 대한 왕성한 연구를 꾸준히 계속하여, 마침내 71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대저를 펴낸 것이다.

또하나 생각할 일은, 19세기 후반기부터 우리나라의 국어학 연구는 주시경·유길준 선생과 같은 선구자들에 의하여 개척되어, 그 뒤 여러 학자들이 꾸준히 국어학 연구를 계속하여 왔으나, 주요 관심사는 국어 표기법의 확립, 표준어의 사정, 사전 편찬 등에 쏠리고, 이러한 국어 정리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문법 연구가 국어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한글갈'은 우리나라 국어학의 여러 분야에 대한 연구가 아직 뚜렷하게 분화되기 이전의 저술에 속하는 업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큰 업적이 있었던 덕택으로 1945년의 8·15광복 이후 우리 겨레가 다시 국어학 연구에 눈을 뜨고, 우리말과 우리 글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하였을 때, 이 ‘한글갈’은 신진 국어학도들에게 등대불과 같은 길잡이 구실을 하였던 것이다.